

동구권 변혁을 보는 두 시각

공산권 내부와 자본주의사회의 이해 엇갈려

최근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고요해진 것도 같은 현재의 동유럽 상황이 어찌면 더 큰 모순을 안은 채 또다른 폭발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동구의 변혁에 대한 관심을 대변이라도 하듯 이를 다룬 책들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이후부터 본격 출간되기 시작한 이 방면의 책들은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O.보고몰로프 외 엮음, 풀빛) 「격동의 동구현대사」(일본동구사연구회 엮음, 좋은책) 「동유럽은 어디로 I·II」(페트르 울 외 지음, 신평론) 「기묘에 선 사회주의」(실비우 브루칸 지음, 푸른산), 그리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출간된 「공산주의는 끝나는가」(A.치코프 외 지음, 동아일보사) 등 10여권에 이른다.

이들 번역서들은 크게 공산주의내의 학자들에 의해 씌어진 것과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는 시각으로 씌어진 것들로 대별된다.

이중 현재까지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사회주의권 개혁의 논리와 쟁점을 소련 최고이론가들의 글을 통해 살피고 있다. 모두 4부로 구성, 1부에서는 개혁의 총노선이라 할 수 있는 '인간적 민주사회주의'론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2,3,4부는 각각 경제개혁, 정치개혁, 새로운 사고의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개혁과정에서 생겨난 이론적, 실천적 문제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개혁의 내용과 성격, 향후 전망 등을 진단한다. 대체로 개혁의 주류적인 움직임을 알려주고 쟁점을 부각시키는 글들을 소개했다.

「기묘에 선 사회주의」는 루마니아의 개혁공산주의자 브루칸의 저서로 그의 마르크스주의관이나 개혁노선을 밝힌 글. 동유럽의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의 분석이어서 서방언론에 비친 동구사회의 모습에만 익숙해져 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브루칸은 무엇보다 동서간의 엄청난 경제적·기술적 격차가 현존 사회주의가 중국엔 자본주의를 대신할 보다 우월한 사회로 될 것이라는 기본전제를 허물어뜨릴 만큼 위협적인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스탈린의 '두개의 세계시장론'이 그릇된 것임은 물론 과학기술혁명에 의해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론은 기만적인 것이 되었으며 동서경쟁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완패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는 현존 사회주



동구개혁의 열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쓰러진 스탈린동상.

의가 단순히 존립하게 위해서라도 과학기술혁명에 적합하게 구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를위해 신경경제책과 개방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유럽은 어디로 I·II」는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유럽 사태를 동독·폴란드(1권) 체코·헝가리·유고·루마니아(2권)로 나눠 살피고 있다. 이 책 두권은 실제하는 사회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입장에 기초하여 씌어진 글들의 묶음으로 전세계적으로 배포되는 좌파 정기간행물들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에르네스트 만델, 페트르 울 등 저명한 좌파이론가들의 분석과 전망, 그리고 풍부한 사실자료를 중심으로 변혁의 한복판에서 전해오는 해당 동구국가 좌익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격동의 동구현대사」는 87년 일본의 동구사연구회가 펴낸 것으로 동구의 근·현대사에 관한 것. 특정시나 특정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동구사 전체의 특징과 동구제국이 안고 있는 민족문제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18세기 합스부르크제국 시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동구역사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동구변화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는 아니지만 동구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구개혁을 바라보는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구현대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 민주변혁의 과정에 있는 우리와는 다소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있다.

지난해에 나온 「공산주의는 끝나는가」는 소련에서는 처음으로 스탈린과 그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해 충격을 던져주었던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알렉산드르 치코프 박사의 논문

「스탈린주의의 기원」을 비롯, 뉴욕타임스가 특집시리즈로 분석한 '공산주의의 오늘-희망과 좌절', '냉전과 좌절', '즈비그 브레진스키 박사의 '소련제국은 자멸할 것인가' 등 소련과 자본주의권 저명학자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싣고 있다.

이밖에 새로 기획, 간행되고 있는 책들도

수권에 이른다.

신평론은 스탈린 권력장악 이후 러시아공산주의가 어떻게 관료화되어 갔는지를 당시의 자료를 갖고 분석한 「소련은 어디로」와, 중국 천안문봉기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구·소련뿐 아니라 중국 역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룬 「북경 민중봉기, 그리고 그 이후」도 곧 펴낼 예정이다.

또 푸른산에서도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를 비롯해 현존 사회주의의 위기와 개혁을 다룬 몇가지의 책들을 준비중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의 개혁은 세계정치 질서를 뒤엎고, 세계사의 흐름을 뒤바꿔 놓은 엄청난 정치·사회적 격변일 뿐 아니라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혁신이다. 몇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펴낸 이들 책들은 동구의 사태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변혁운동진영이 현실의 변화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당분간 이와 관련한 책들의 출간은 계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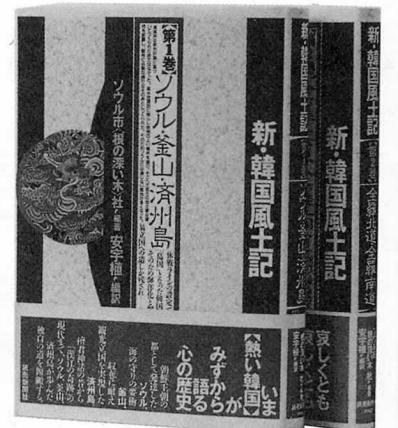
—정혜옥기자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의 인문지리지

「한국의 발견」日譯本「新韓國風土記」

뿌리깊은나무에서 지난 1980년부터 5년간에 걸쳐 개발, 출판한 「한국의 발견」(전11권)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출판국에 의해 「新韓國風土記」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됐다.

한국어판 11권 가운데 각권의 총론적인 제1부만을 번역하여 ① 서울·부산·제주도 ② 전라북도·전라남도 ③ 충청북도·충청남도 ④ 경기도·강원도 ⑤ 경상북도·경상남도편의 5권으로 축약·구성된 이 「신한국 풍토기」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이 책만한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杉林昇)라는 일본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일 한국인 평론가 안우植이 번역을 맡아했다.



이 책은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어자료'의 궁핍으로 갈증을 느껴온 재일한국인 및 그 2, 3세들의 수요로 판매에서도 비교적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들을 비롯한 국내수요자들을 위해 역수입도 검토되고 있다고.

讀賣新聞社 / A5 / 각 280면 안팎 / 각 3200엔